

激 勵 辭



대협회의 권익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진력해오신 송자도 의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과 대협회원 여러분 가장 큰 보람이라는 뜻의 정월 대보름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오늘, 전기안전관리대협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월(正月)은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로서 한 해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기원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뜻 깊은 달에 전국의 대협회원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개최하는 정기총회가 앞으로의 대협협의회의 사업을 계획하고 회원간의 단결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대협회원 여러분!

최근 몇 년동안 기업의 국가경쟁력제고 등을 이유로 시장경제원리라는 미명하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회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행정자치부의 전기안전관리자 상주근무제도 폐지 추진, 규제개혁기획단의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관련규제 폐지 추진 등 정부 각 부처에서는 각종 규제의 폐지 및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회원을 위한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대응하여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전기안전확보와 국민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최 일선 현장에 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공기의 소중함을 잊듯이, 전기의 소중함을 잊어버려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력하는 여러분의 노고와 역할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로, 작년 5월에는 국회에서 민간 대협업체의 근거규정을 삭제, 대협업체의 관리감독기능 개선 또는 대협업체의 등록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협회가 산자부에 적극 건의하여 현행 존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제도와 관련하여 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즉시 또는 짧은 시간 내에 개선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까지도 기술기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합격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수검 받는 업체에서는 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수료의 비용부담 가중, 안전관리 대협기술의 신뢰도 저하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이러한 대형업체의 어려운 사안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 불합격판정 일시유보제'의 도입을 산자부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이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협회장으로 당선된 후, 얼마 안 되어 대협협의회 송자도 의장과 김선복 감사 등 임원진 몇 분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대협협의회는 오랜 숙원사업이 있다' 면서 그 동안 해결되지 못한 법제도적인 사항에 대하여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협협의회의 현안사항인 선·해임신고필증의 회사단위 발행, 대행수수료 법적근거 마련 등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회 상근임원 및 해당부서에 적극 추진을 지시 하였고 상주회원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구 하였습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지난해 전기사업법령 개정시 정부에 개정 건의안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며, 이의 반영을 위해 정부 관계자와 우리 협회 임직원 및 대협협의회 송장도 의장 등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도 여러 차례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도 해왔습니다.

비록 정부 관계자의 반대로 인하여 지난해 전기사업법령 개정시에서는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이제 정부관계자도 인사 이동이 있었던 만큼 금년에 동 법령 개정시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전력기술인들의 경력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 D/B구축 및 통합전선망 구축 3개년 사업을 작년에 완료하여, 전력기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 협회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전력기술업무 수행중 겪게 되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지난 '04년부터 협회 내에 "전력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협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는 그동안 대협회원을 비롯한 전력기술인의 권익보호와 위상제고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여러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력기술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협회를 대외에 알리고자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선포하여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3,500여명의 전력기술인이 모인 가운데 "전력기술진흥대회 및 전기인의 날" 행사와 함께 전국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협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공로가 많은 전력기술인에게 국가에서 주는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큰 상을 수여하는 독자적인 행사를 갖게 되었으며,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모여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여기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전력기술인 및 회원들의 단합과 단결을 도모해 왔습니다.

또한, 국내 전력산업계의 발전과 단결을 도모하고 회원과 전력기술인에게 유용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매년 4월에 "국제전력전자 및 전기설비전"을 산업자원부 후원으로 주최하여 해외 바이어를 포함한 13,000여명이 참관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사 때마다 KBS와 MBC-TV의 뉴스시간에 방영이 되고 각종 신문에 홍보가 됨으로써 전력기술인과 협회를 대외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전력기술인들이 협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협회 회원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2006년도 대협협의회 정기총회 격려사 】

대협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는 전력기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사업 및 인력양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난 3년간 정부로부터 많은 기금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는 회원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회비를 정말 소중히 사용함은 물론, 깨끗한 경영을 통해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지난 3년 동안 19억원이상의 당기 순이익을 냈으며 그 중에서 15억원을 회관건립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적립한 기금 15억과 회원들이 기부해주신 성금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서울 사당역 인근 대로변에 있는 지하2층 지상6층의 건물을 협회 회관으로 매입하여 작년 말에 잔금을 모두 지불함으로써 드디어 우리 협회는 “회관” 마련의 꿈을 이루었으며, 금년 여름 중에 협회 사무실을 새로 매입한 회관으로 이전하여 회원들의 업무편의 제공은 물론 회관과 교육장으로 사용하여 협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대협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말 지회장 회의때, 회관 매입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10억원을 더 줄테니 되팔라는 제의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관을 매입함으로써 이제 돈도 벌었고, 우리가 지난 42년간 셋방살이를 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우리 협회 회관인 내 집을 마련했으니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협회는 회원들의 회비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5% 회비 인하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회비를 인하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회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수익사업의 창출은 물론 정부로부터 좀더 많은 기금을 지원받아 회원 여러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점진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입니다

친애하는 대협회원 여러분!

여기 계신 송자도 의장님은 지난 3년간 대협회원 여러분의 권익보호와 대협 업계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대협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 등을 조율하는 회의를 하였으며, 조만간 대협회원 여러분들이 만족할만한 보상요율과 보상한도 등이 책정될 것입니다.

이제 대협업계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협회원 여러분들은 더욱 단결하여 전기안전관리대협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대협업계의 발전과 타의모범이 되어 수상을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과 대협회원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사업에 만복이 깃들어 소원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2. 10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이 희 평